

지역 소식통

제17회 김제시 보육인 한마음 대회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어린이집연합회와 지난 21일 김제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김제시 보육인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김제시 보육인 한마음대회'는 부모와 아이의 행복한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과 힐링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해 관내 보육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 유공자 표창, △보육인 윤리선언문 낭독, △문화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공덕면 익명의 천사 100만원 기부금 전달

김제시 공덕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익명을 요청하는 독자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돼 달라며 1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기부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현금과 직접 생산한 쌀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와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특히 생활환경이 곤란한 여학생들이 위생용품 조차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언론에서 접하고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장애인 등 관내에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부를 시작했다.

기탁된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다양한 지역복지 문제 해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자는 "공덕면 지역사회 의 어려운 주민들과 특히 자라는 여성청소년들에게 잘 써 주길 바란다"며 "공덕면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2025년 김제 대도약 위해 '총력'

시, 전략적·선도적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대응·김제 맞춤형 시책 발굴 추진 등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정부 재정 기조 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시대를 열어 가며 김제 대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원을 확보하고 오는 2025년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김제는 전략적·선도적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대응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회 국가균형발전사업(지역자율계정) 우수사례 선정,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고향올래(GO鄕ALL來) 공모 선정 등 김제의 행정역량 집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시는 세종사무소 운영을 통한 중앙부처 및 국회 수시 대응으로 2026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중앙(도) 공모 대응해 45개사업 961억원이 선정됐다.

또 약 20여개 사업은 심사 추진 중이거나 사업의향을 타진 중이다.

더불어 김제 100년 초석 마련 및 시민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시책연구모임에는 11개조, 54명이 활동하며 우수시책을 선정하고 김제맞춤형 2025 시책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선8기 공약사업 성실 이행으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고향올래 공모에 선정돼 특교세 8억원, 저출산 대응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공모 '최우수' 선정으로 인센티브 1천7백만원을 가져오는 등 인구유입 활력제고로 인한 인구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는 올해에만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 2024년 균형발전사업 종합평가 '우수' 등 8건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행정적으로도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정부 재정 기조 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시대 개막으로 김제 대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원을 확보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김제 100년 초석 마련 및 시민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의회, 지방시대위원회 방문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의사 담긴 2차 반대서명부 전달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가 21일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고, 통합반대 2차 서명부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방 자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려 했지만, 지난 8월부터 지속적인 요청에도 위원장과 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아, 기획담당과 짧은 간담회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날 의원들은 지방시대위원회에 △완주군민 자주권을 보장하고, 군민의 정확한 의견 파악해 시·군 통합방안에 반영해 줄 것 △주민투표보다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완주군의회 의견을 통해 통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줄 것 △지방시대위원회 차원에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반대 여론이 클 경우, 완주·전주 통합의 불필요성 및 추진시기 부적절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대해 지방시대위원회 조봉업 기획담당장은 "완주군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법에 나와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형식적인 답변만 이어갔다.

시남용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장은 "완주군민들이 분노한 가장 큰 이유는 통합 당사자인 완주군민의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은 채 행정통합을 공식화 했다"면서 "완주군민들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통합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행정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발생하는 많은 부작용과 주민감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일단 질러놓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따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짧은 만남 후 유의식 의장은 "완주·전주 행정통합이 결국 한쪽 지역만 더 비대하게 성장하고, 완주군 지역은 더욱 낙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완주군민에게 희생만 강요할 뿐,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더 이상의 완주·전주통합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 내 갈등만 부추기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며 "완주군은 행정통합보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의식 의장은 "완주군민들에게 완주·전주 행정통합의 허구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한 지방시대위원회 측에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 24일까지

미래 특장차 산업 비전·농특산물 직거래장터서 우수 농특산물 전세계에 홍보 등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해 김제의 맛과 멋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제의외포청, 전북특별자치도 등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2,000여명의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 경제인들과 1,000여명의 국내 기업인들이 참여해 상생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국제 비즈니스의 장이다.

대회장에는 시의 주력산업인 특장차 산업 홍보부스를 운영해 특장차 산업

홍보 및 투자유치와 함께 국내 유일 특장차 1·2단지를 모형도로 표현하여 특장차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구현했다.

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서는 지역 특화품목인 가루쌀을 활용한 디저트와 쌀, 보리, 파프리카, 사인머스켓 등 관내 농특산물 전시·판매·시식으로 김제만의 특색있는 먹거리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대운동장 컨벤션센터에 마련된 기업전시관에는 자동차 전장부품, 특장차, 목조주택 자재, 유기질비료 등을 주력으로 한 9개 기업이 참여해 해외 바이어들에게 우수한 상품을 선보였다.

또한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으며, 야외에서는 전북특장차협회의 특장차 전시를 통해 해외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는 기업들이 세계 수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며 "해외 바이어들과의 상담이 수출 시장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회 참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누린다'... 완주군 반다비체육센터 개관

봉동읍에 2층 규모... 체력단련실·운동처방실·프로그램실 등 구축

완주군이 반다비체육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2일 완주군은 오후 2시 봉동읍에 들어선 반다비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유희태 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의장, 권오안 도의원, 권의원, 완주군 장애인체육회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식을 열었다.

기념식에 앞서 축하공연에는 증중장애 청년들로 구성된 퍼퍼밴드의 공연이 이루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누리는 시설로 장애인을 우선

한다.

국비 35억 원과 도비 10억 원, 군비 82억 5,000만 원 등 총 127억 5,000만 원이 투입됐으며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다목적 체육관과 e-스포츠실, 체력단련장과 운동처방실이 2층에는 탁구장, 프로그램실이 들어섰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운영 사무실(063-262-2503)에 사용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또한 완주군장애인체육회에서 연말까지 장애인체육(레크레이, 컬링, 볼링, 슐런, 한국, 요가) 프로그램과 생활체육교실(보치아, 좌식배구, 배드민턴, 골볼, 족구, 농구) 참가자, 장애인 탁구 회원을 모집한다. 신청은 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체육회에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체육센터 운영을 하면서 장애인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체육 복지 향상 및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금융사기 피해 예방 위해 협력 다짐

완주군-완주경찰서, 업무협약

완주군과 완주경찰서가 신종, 악성 금융사기 피해 예방으로 '안전한 완주' 만들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22일 유희태 완주군수와 김효진 완주경찰서장은 완주경찰서 회의실에서 협약을 갖고, 그동안 양 기관에서 추진해 온 범죄예방 홍보 활동 추진 실적을 공유했다.

또한, 더욱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금융사기 수법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활동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협력을 다짐했다.

완주군수는 "최근 급증하는 인구와 방목객 수에 비례해 치안 문제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급변하는 치안 환경



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효진 완주경찰서장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사고 예방을 위해 완주군과 긴밀한 협력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협력으로 더욱 안전한 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